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김미은



지난 6월 '희망나무 영 오케스트라'(이하 희망나무)의 첫 연습 현장을 취재한 적이 있다. 지역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희망나무'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일반 가정 아이들이 어우러져 '화음'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다. 이날 바이올린과 첼로를 처음 받아든 아이들은 무척 행복해 했고, '맨날 맨날' 연습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희망나무'를 보며 떠오른 건 지난해 제 전국체육음악영화제에서 감명깊게 봤던 다큐 영화 '기적의 오케스트라-엘 시스템아'였다. '엘 시스템아(EL SISTEMA)'는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시스템이다.

활동중이다. '엘 시스템아'는 '문화나눔'과 '문화에 교육'에 주목하는 우리나라에서도 3~4년전부터 자주 회자되는 단어다. 광주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부쩍 '광주의' 활동중이다. '엘 시스템아'를 이야기하는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광주 시 등이 다양한 '문화나눔' 공모 사업을 진행한 결과다. 그러나 자료를 읽고 취재를 하면서 '엘 시스템아'의 이름만 빌렸다'는 느낌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원금'만 따낸 단체들도 눈에 띄었다. 아이들이 약기를 배우고, 무엇보다 오케스트라를 조직해 음악을 나누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한 곳은 드물었다. 특히 자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없이 지원금에만 의존, 이후 공모에서 탈락하면 '과정'들이 모두 소멸돼 버리는 게 안타까웠다.

'엘 시스템아'와 광주

첫째 영화를 보는 거다. 전국 20개 스크린에서 소박하게 개봉한 '엘 시스템아'는 입소문만으로 관객 2만명을 넘어섰고, 단독상영중인 광주극장에도 1000여명이 다녀갔다. 종이로 만든 악기를 든 유전자원생들, 가슴으로 연주하는 장애아들의 모습은 영화가 전해주는 감동적인 풍경이다. 극장 나들이가 번거롭다면 푸른숲에서 출간된 '엘, 시스템아, 꿈을 연주하다'를 펼쳐봐도 좋다. 저자는 수많은 기록과 인터뷰를 통해 '엘 시스템아'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개인적으로는 엘 시스템아를 거쳐간 이들이 엘 시스템아로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아이들, 음악으로 꿈꾸다

1975년, 빈곤에 시달리는 거리의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음악'을 통해 새로운 베네수엘라를 만들겠다는 경제학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의 '꿈'은 허름한 차고에서 11명의 아이들에게 악기를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35년간 30만명의 아이들이 무료 음악교육의 혜택을 받았고, 현재 300여개가 넘는 오케스트라가

타가왔다. 앞으로도 '문화나눔'은 지역 사회의 중요 키워드가 될 것이고, '엘 시스템아'가 훌륭한 벤치마킹의 대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문화나눔'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이들, 각종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이들, 그리고 문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제대로' 된 '엘 시스템아'를 접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멀게만 느껴지지만 행복하게도 지금 '엘 시스템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다.

문화재단이 씨 뿌린다면

한 평론가가 '세계 클래식 음악계를 먹여 살릴 현대의 모차르트'라고 칭한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은 엘 시스템아 출신이다. 29세에 LA 필하모니 상임 지휘자로 발탁된 그는 히스패닉이 많이 사는 LA 빈민가 학교에서 '빈민가 오케스트라 운동'을 시작했다. 지금은 시카고, 볼티모어 등의 빈민 학교로 퍼져나간 '미국판 엘 시스템아'의 시동이 걸렸다. 최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공립교향악단과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 엘 시스템아'를 구상중이다. 마침, 내년이면 광주문화재단이 발족한다. 재단이 광주에 '엘 시스템아'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 키워내는 건 어떨까. 엘 시스템아 운동이 자리잡고, 수많은 두다멜이 등장하고 그래서 많은 '희망나무'들이 튼실한 열매가 열린다면 '베네수엘라의 음악혁명'처럼, '광주의 음악혁명'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문화생활부장)mekim@

은편칼럼

김병인



지난 7월 말 일본 후지산, 하코네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 관광객이 넘쳐나고, 상인들은 "니하오(안녕하세요), 찌거 현피엔이(이것 대단히 싸입니다)"를 외치며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관광객의 파위를 실감하였다.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중국 내지, 대만 등 출신지도 다양하였다. 중국 공안출입국관리소 통계에 의하면 작년 중국인 해외 출국자 수는 9491만5000명이고, 그중 해외 여행자 수는 4766만 명이었다. 현재도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관광 잠재력도 엄청나다. 지

군 지출액 1229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이른다. 머지않아 중국인 해외 관광객은 1억 명에 달할 것이다. 현재도 중국인 출국자 중 상당수가 관광객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는 국가가 국가대로 각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중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본은 비자 발급 절차와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미국은 명품 할인율을 중국대비 50% 수준으로 낮추고, 두바이는 항공권 할인까지 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2012년 중국인 관광객 300만 유치를 목표로, 지난 7월 중국인 비자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

중국인 관광객을 잡아라

난 30년간 10%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은 국가적으로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에, 2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제1의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4억명이 넘는 중산층을 보유하게 되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2억명 이상 증가할 것이다. 특히, 1인당 GDP 1만 달러 이상인 중등 부유층 도시의 상하이, 북경, 광저우를 비롯하여 11개 도시인데, 이곳의 인구만 해도 9385만 명에 달하고 GDP는 1조 727억 달러로 우리나라(8200억달러)보다 많다. 이러한 인적, 경제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중국 해외 관광객은 연평균 20% 내외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인의 해외 씀씀이도 큰 손으로 정평이 나왔다. 유엔세계관광기구 발표에 의하면, 중국인의 2009년 외국 관광 소비 규모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437억 달러(51조5600억)에 달하였고, 중국 국가여행국 조사보고서는 여행 중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58.5%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인 관광객 평균 지출액은 2,203달러로 외국인 관광객 평균보다 30%나 많고, 일본인 평

균 지출액 1229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이른다. 머지않아 중국인 해외 관광객은 1억 명에 달할 것이다. 현재도 중국인 출국자 중 상당수가 관광객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는 국가가 국가대로 각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중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본은 비자 발급 절차와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미국은 명품 할인율을 중국대비 50% 수준으로 낮추고, 두바이는 항공권 할인까지 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2012년 중국인 관광객 300만 유치를 목표로, 지난 7월 중국인 비자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편상'을 수여 합니다. 은편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박흥석



성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는 선진형 입학제도인 입학사정관제가 시행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혹자는 입학사정관제를 각 지원자의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한 "인본주의적 대입전형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학사정관전형은 새로운 입시 패러다임과 인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낮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의 입학관리본부는 공교무원,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 등에게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교 성장프로그램인 점포업, 3회의 체험캠프 및 1회의 모의전형을 통하여 고교생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왔다. 또한, 교육청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진학교사 연수프로그램 등을 시행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진학·진로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담당 선생님들은 입시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기를 원한다. 입시관계자들은 이런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알권리'

각 대학의 개별적 실정에 맞는 정보 공개 프로그램은 다양하겠지만 대략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보공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고교를 직접 방문하여 입학사정관제를 설명하고, 홍보 책자를 배포한다. 둘째, 소외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진학지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셋째, 입학사정관제 체험캠프나 모의전형을 통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경험하게 한다. 넷째, 공교육 기관과의 연계나 협약을 통하여 진로와 진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대학교는 100회가 넘는 고교방문 입학설명회,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설명회 등을 시행했으며, 홍보책자 7000부를 제작하여 수험생들에게 배포하였다.

아 한다. 그것이 교육 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험생이 구체적인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때,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지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학생의 개별적인 특징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기존의 수취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던 방식으로부터의 긍정적인 변화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 수요자가 입학사정관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열려가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 선행됨으로써 수험생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부디 대학의 입시관계자들은 이 점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한다. (광주방송 대표이사 사장·전남대학교 자문입학사정관)

보험사 보험금 안주려 '미구잡이식 소송' 안했으면

외사촌 형님이 최근에 뇌종양으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얼마 전 가입했던 보험사에서 느닷없이 소장이 날라왔다. 난치병이 생겨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기는커녕 소송을 당하다니 하늘이 무너질 일이었다. 수술비 850만원을 보험회사 측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법적으로 다투되자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것이다. 보험회사는 합의 보지 않으니 법원에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당장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결국 변호사와 상담을 해봤더니 채무 부존재 소송은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에 분쟁이 벌어졌을 때 보

험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걸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을 지식도 없고 소송 비용도 많이 들어 보험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소송이 진행되면 보험가입자들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보험회사와 소송까지 해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보험 가입하라고 권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보험회사들이 결국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줄 때는 그게 아까워서 소송이라는 칼을 들이대는 행위는 아픈 사람더러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구잡이식 소송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홍명호·광주시 서구 품양동

시설

LH 방만 경영 서민들에 전가해서야

국토해양부는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과 보급자리 주택 건설사업장 13곳 7278가구의 준공 시기를 1~2년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연기 조치는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 때문이라고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효천1지구 국민임대주택 2개 사업장 2195가구의 준공 시기가 당초 2013년 3월에서 2014년 4월로 13개월간 늦춰졌고, 효천2지구 보급자리주택 7개 사업장 3406가구도 2011~2012년 12월 준공 예정에서 2013년 12월로 최대 2년간 미뤄졌다고 한다. 전남지역은 해남 해리 국민임대주택(304가구)과 담양 백동2지구 국민임대(601가구), 완도 군내 국민임대(406가구), 고흥 남계 국민임대주택(366가구) 등이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 준공이 연기됐다.

해당 주민들의 입장에서선 날벼락이나 마찬가지다. 공기업을 믿고 몇 년씩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수해 왔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그만큼 늘 수밖에 없다. 사실 LH가 빛뒤미에 오른 것은 세종시 등 공적사업을 떠안은 탓이 크다. 여기에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방만하게 사업을 벌이고 무리한 경영을 해온 것도 이유를 들었다. LH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수익성 악화 때문에 사업을 연기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런 상황에 소홀히 대비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임제라도 LH는 주민들의 충격을 줄이고 공공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 등은 공익성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부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정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게 급선무다.

농어촌교육 황폐화시키는 교사 정원 감축

정부가 시·도 교원 정원 배치 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면서 농·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농어촌 교육이 황폐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전남지역 교사 정원은 기존 변경에 따라 초등 254명, 중등 156명 등 총 410명이 감축된다. 올해 이미 줄어든 769명을 포함하면 2년 만에 전체 교원의 10%가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중·고교의 경우 학급당 교사 1~3명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학급당 학생 수는 최소 3명에서 5명까지 늘게 된다고 한다. 교원 정원 기준을 학생 수로 하면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교사 수는 줄 수밖에 없다. 교사 정원이 감축될 경우 전담교사는 줄고 순회, 삼치 교사를 늘려야 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을 게 뻔하다. 특히 전남의 경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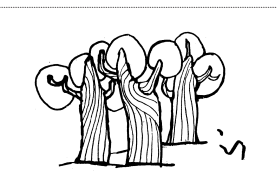
군 임용을 대폭 줄여야 하고 정원 감축에 따른 과잉(過員)을 광주 등 도시지역으로 내보내야 할 처지여서 교단 노령화가 심화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90명이 광주로 전출되는 등 40대 전후의 교사들이 전남을 대거 빠져나갔다. 획일적인 교원 감축은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농어촌 교육환경의 황폐화를 불러올 수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 같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 질 저하가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원 정원 변경은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으로 학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학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따라서 농산어촌 등 나후지역에 대해서는 학급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농·산·어촌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세계 각국의 신화에는 신성한 나무, 일명 세계수(世界樹) 또는 우주수(宇宙樹)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실려 있다. 가장 신비롭고 유명한 나무로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위그드라실'을 들 수 있다. 최고의 신 오딘(Odin)이 심었다는 위그드라실은 신들이 사는 아스가르드와 인간이 거주하는 미트가르드, 그리고 지하세계인 니플하임을 관통하고 있는 거대한 물푸레나무다. 메소포타미아의 에리두 지역 신화에는 '키스카누'라는 신성한 나무가 등장한다. 천상에서 자라난 키스카누의 가지는 땅을 둘러싼 대양으로 뻗어 나가며 뿌리들은 우주

원을 지칭하며, 모든 이들이 이 나무에 몸을 의지한다. 우리나라에는 신단수(神壇樹)가 있다. 단군신화에 따르면 환인의 아들 환웅은 천부인 세 개와 3천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 신단수가 있는 곳은 신성 불가침한 곳으로 일명 소도(蘇塗)라고도 불린다.

신단수



이처럼 나무를 세계의 중심 또는 우주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은 세계 도처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한 톨의 씨앗에서 시작해 거대한 크기로 성장, 수심~수백년을 살아간 뒤 다시 작은 씨앗으로 되돌아가는 나무에서 인간이 넘볼 수 없는 무한한 생명력과 신성한 기준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잇따른 태풍과 폭우로 나무들이 역할을 담당한다. 아스바타는 뿌리를 천상에 둔 채 나뭇가지가 온 대지를 덮고 있는 불멸의 무화과나무다. '거꾸로선' 아스바타의 가지들은 에테르와 공기, 불, 물, 대지 등 브라만을 상징하는 5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